

“너는 내 운명” 4차원 절친 “마운드는 우리 숙명”

KIA 투수 임기영·김윤동
설맛이 맛있는 토크

경북고에서 한솥밥을 먹던 투수와 외야수였다. 한화와 KIA에서 프로 선수의 꿈을 이루며 ‘적’이 됐던 두 사람. 그러나 2017년 ‘동료’로 만난 두 사람은 ‘호랑이 군단’의 든직한 선발투수와 필승조로 우승의 현장에 함께 했다. ‘너는 내 운명’ 절친 임기영과 김윤동의 이야기다. 운명처럼 다시 같은 공간에 선 두 사람은 KIA의 2018시즌 운명의 킷을 쥐고 있다. 2018 시즌 KIA 마운드의 두 축을 이룰 임기영과 김윤동을 스프링캠프에 앞서 만나 ‘맛있는 토크’를 진행했다.

◇경북고의 핵심이자 4차원
임기영과 김윤동은 경북고에서 프로선수의 꿈을 키운 친구 사이다. 지금은 함께 마운드에서 있지만 당시에는 투수와 외야수가 그들의 자리였다. 2학년 때 두 사람은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무등기에 참가해 투수와 5번 타자로 실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김윤동은 2010년에 열린 무등기 타점왕 출신이기도 하다. 4경기에서 김윤동이 기록한 성적은 14타수 6안타(타율 0.429) 4득점 6타점 1도루. 담장도 한 차례 넘겼다. 어렸을 때부터 사이드암 투수로 활약했던 임기영은 경북고에서도 역시 주목받는 ‘신에 짐수함’이었다. 변화구와 제구가 임기영의 매력이었다.

그러나 김윤동에게는 투수의 꿈이 컸다.

김윤동은 “2학년 때 투수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3학년 올리는 겨울에 스피드가 126km 밖에 나오지 않았다. 아프지도 않고 몸이 너무 멀쩡했는데 그것 밖에 나오지 않았다. 감독님께서 부르셔서 ‘치는 것에 집중해라. 피칭하고 싶으면 투수코치님한테 가서 해보라’고 하셨다. 방망이를 잘 친 것도 아니었다”며 경북고 시절을 떠올렸다.

프로 선수의 꿈에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다. 3학년 초반에 부진하면서 두 사람은 걱정 많은 3학년상을 보냈다.

임기영은 “둘 다 전반기 때는 죽 썼다. 둘 다 마음을 내려놓았다. 후반이 들어 청룡기 때 잘했다. 프로만 가자는 생각을 했었다. 대학에 갈 생각도 없었다. 지명을 못 받으면 육성선수로 프로에 가려고 했다”고 말했다.

김윤동은 “지명 못 받으면 야구를 그만 두겠다고 부모님과도 이야기했었다. 지명 받을 때 집에 있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빨리 내 이름이 나와서 너무 좋았다. 지명 받고 나서 바로 놀러나갔다”고 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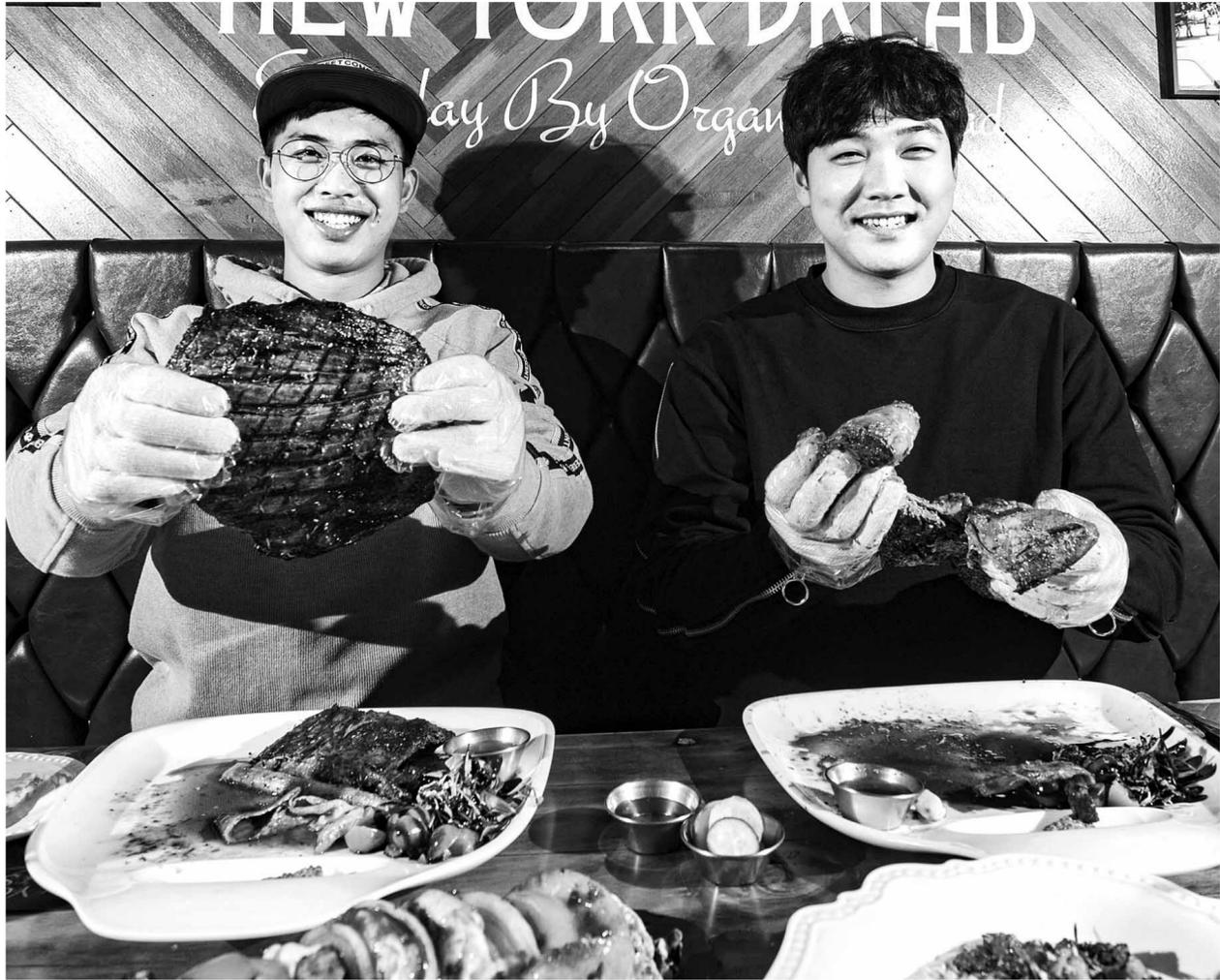
꿈에 그리던 프로 선수의 꿈을 이뤘지만 김윤동은 입단 첫해 갈림길에 섰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타격 때문이다. 김윤동은 “프로에 가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할 각오였는데 현실이 부딪히니까 힘들었다. 타자로 캠프 다녀왔는데 너무 못됐다. 주로 3군에만 있고, 방출 걱정을 했다”며 “당시 조규제 코치님이 투수해볼 생각 없냐고 하셨다. 투수에 대한 꿈도 있었고, 형들이 코치님들 보시라고 피칭도 시키고 그랬다. 투수 안 됐으면 집에 있었을 것이다. 아마 지금쯤 미루고 미루다 군대에 갔을 것이다”고 웃었다.

함께 프로 선수의 꿈을 이룬 경북고의 두 소년.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들의 확장시절은 ‘4차원’이다.

임기영은 “진짜 4차원이었다. 2학년 때 같이 도망을 가기도 했었다. 처음에 3학년 행들이 말했다. 그래도 중요한 황금사자가 있어서 미루다가 체전 예선은 하고 갔다. 나는 합숙을 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숙소에서 나오자마자 뛰었다. 바로 운동이한테 전화해서 터미널에 갔다. 유심도 뺄고, 지하철 사물함에 핸드폰도 다 놓고 도망갔다”며 웃음을 터트렸다.

이유는 ‘그냥 운동이 하기 싫어서’였고, 이들의 탈출은 2박 3일 일정으로 마무리됐다.

김윤동은 “마산으로 갔었다. 제일 빠른 티켓을 달랬더니 마산이었다. 해변이 있는 바다를 보고 싶었는데, 바다가 있다고 했는데 부두만 나왔다. 창원까지 걸어갔다 하치하이크를 하기도 했다”고 이야기했다.



KIA 타이거즈의 ‘절친’ 임기영(왼쪽)과 김윤동이 스프링캠프 전인 지난 1월 23일 광주 충장로 한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으며 즐거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새로운 선발과 든직한 필승조로 활약을 한 두 사람을 올 시즌에도 KIA 마운드 킷을 친 핵심멤버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경북고 시절 야구하기 싫어 2박3일 함께 ‘탈출’

나란히 국가대표 발탁·KIA 필승조로 성장



선발투수 임기영

프로만 가자고 생각했죠
한화 주목받던 신예였다
직장 옮긴다는 점괘 3일 뒤
송은범 보상선수로 KIA행
보너스 든 통장보고 새 각오
운동이처럼 시즌 완주할 것

◇한화에서 KIA로, 운명의 재결합
KIA의 마운드 두 축이 된 2017시즌. 김윤동이 외야수에서 투수로 변신한 뒤, 임기영이 팀을 바꾸게 되면서 가능했던 일이다. 한화의 신예 투수로 주목받던 임기영은 지난 2014시즌이 끝난 뒤 상무 입대를 앞두고 있었다. 먼저 김윤동이 상무에 가 있었던 만큼 두 사람의 만남이 예고됐던 상황. 그러나 입대에 앞서 또 다른 놀

라운 일이 생겼다. 임기영이 송은범의 보상선수로 KIA의 지명을 받은 것이다. 임기영은 “KIA로 오기 전에 재미로 사주 보러 갔었다. 그런데 직장을 옮긴다고 했다. 12월에 입대하는데 무슨 소리냐고 했는데, 그 전에 옮긴다고 했고 3일 후에 KIA로 가게 됐다. 그 뒤로는 재미로 사주를 보러가는데 ‘예’ 하고 진지해진다(웃음). 학교에 놀러갔었는데 정민철 코치의 전화를 받고 (지명 받은 걸) 알았다. 운동이에게 KIA간다고 알려줬는데 거짓말한다고 욕을 하더라. 발표일이었는데 운동이에게 5분 뒤에 기사 보라고 했다”며 지명날을 말했다.

상무 선입과 후입으로 1년을 보냈던 두 사람. 선임 김윤동이 먼저 제대를 하고 와서 KIA의 필승조로 성장을 했고, 그 뒤 임기영이 마운드 셋배이 되어 KIA 선발 한 자리를 꿰찼다.

임기영은 “군대 있을 때 운동이가 1군에서 던지는 것을 보니까 신기했다. 얼마전까지 같이 있어서 더 그랬다. 동기부여가 됐다. 빨리 같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임기영이 합류한 2017시즌. 두 사람은 처음 기대와 달리 자리를 바꿔 선발과 필승조가 됐다. 김윤동은 “(홍)건희 형, 나, 기영이가 나란히 상무에서 야구를 해서 친하다. 셋이 선발 후보였는데 내가 제일 먼저 탈락하고 그다음 건희 형이었다. 기영이는 끼어든 애, 깡끼다”고 웃었다.

“내가 농담으로 뒤에서 운동이의 승을 날리버리겠다고 했는데, 자가 날리버리더라”던 임기영과 “내가 여자피 패할 거니까 내가 확실하게 해줬다. 네가 욕먹을 거니까”라는 김윤동.

농담을 주고받던 임기영은 “한국 시리즈에서 제일 큰 경기를 막아줬다”며 친구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다.

김윤동은 “발목을 다쳐서 게임을 안 나가려고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 내가 잘했다. 언제 내가 이런 경기를 하겠나



마무리투수 김윤동

투수 되고 싶었던 타점왕
몸 멀쩡한데 구속 안나와
프로지명 되고 나서 바로
외야수에서 투수로 변신
1군 엔트리 드는 게 목표
기영이 체인지업 부러워

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국시리즈를 돌아봤다.

우승의 순간에 함께 했던 두 사람은 나란히 태극마크를 달고 아시아프로야구 챔피언십(APBC)에서 또 다른 경험을 했다. 불펜에서 난조를 보였던 김윤동과 선발로 위력을 발휘한 임기영, 둘은 함께 웃지는 못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어느 순간에도 든든한 친구였다.

김윤동은 “입국했을 때 마스크를 쓰고 갔는데 김윤동 탈출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 친구들이 기사를 보내주면서 많이 놀랐다. 기영이도 많이 놀랐다. 복수하려고 했는데 기영이가 너무 잘 던져서 배 아팠다”고 말했다.

임기영은 “운동이가 못 던지고 내려와서 너무 쳐져 있더라. 옆에 가서 야 맛글 봐보라면서 약물을 물어왔다(웃음)”고 말했다.

◇초심으로 시작하는 2018시즌
눈빛만 봐도 통하는, 특별한 말이 필요 없는 두 사람은 새로운 출발선에서 2018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보너스가 들어왔다고 해서 통장을 열어봤는데 잠이 깨더라”며 웃음 임기영은 “올 시즌을 앞두고 준비를 더 많이 하게 된다. 지난해 다치고 부상이 있어서 더 준비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윤동도 “연봉도 너무 잘받아서 망설임 없이 계약했다. 조금 더 책임감이 생긴다. 작년보다 더 신중하게 해야겠다는 마음이다. 비시즌 준비하는 것도 그렇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목표는 ‘초심으로 더 좋은 시즌’이다.

김윤동은 “1군 엔트리에 드는 게 목표다. 당연히 내 자리가 아니다. 일단 엔트리부터 드는 게 목표다. 중간 투수 입장에서 잘 던지면 좋는데 못 던지면 너무 가슴 아프다. 아직도 여유는 안 생긴다. 쉬운 타자가 하나 없다”며 “기영이의 체인지업이 가장 부럽다. 날았다. 하는 게 정말 부럽다. 올해는 친구가 안 아프면 좋겠다. 작년에 아프다고 해서 병원을 갔는데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사람처럼 이것저것 달고 있는 게 마음 아팠다. 아프지 않은 2018시즌이 되면 좋겠다”고 바람을 밝혔다.

임기영 역시 “운동이와 마음이 같다. 그런데 안 아픈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작년에 아프서 두 달 빠져있었다. (불펜) 투수 중에서 유일하게 운동이가 안 빠져했다. 운동이는 끝까지 다했다. 나도 아프지 않고 잘하고 싶다”며 “평소에 둘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잘 지내면서 지난해보다 더 좋은 성적 내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BO 2018 퓨처스리그 팀당 96경기 치르고 ‘인기’ 서머리그 확대

KBO 2018시즌 퓨처스리그 일정이 확정됐다. 팀당 96경기가 진행되며, ‘퓨처스 서머리그’가 72경기에서 120경기로 확대됐다.

KBO가 13일 2018 KBO 퓨처스리그 경기 일정을 발표했다. 리그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북부리그(경찰 SK 화성 고양 LG 두산)와 남부리그(KIA 상무 kt 한화 삼성 롯데)로 구성됐다. 경기는 오후 1시, 혹서기인 7월과 8월에는 오후 4시에 시작된다.

퓨처스 서머리그(이하 서머리그)가 진행되는 혹서기에는 선수들의 체력 보호와 야간 경기 적응을 위해 경기 시간이 변경된다. 서머리그 기간에는 KBO 정규시즌과 같이 평일 오후 6시 30분, 주말 오후 6시에 경기가 시작된다.

특히 2017 시즌 첫 시행돼서 현장과 팬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서머리그는 지난해 72경기에서 올 시즌 120경기로 대폭 늘어났다.

1차 서머리그 기간은 휴식일인 목요일을 제외하고 7월 23일부터 8월 12일 까지다. 경기는 챔피언스필드 등 KBO 리그 구장, 퓨처스 구장, 춘천·군산 등 중립 구장에서 열린다.

2차 서머리그 경기는 야시안게임 휴식기로 KBO 정규시즌이 중단되는 기간 동안인 8월 21일부터 9월 2일까지 편성됐다. 잠실 12경기, 문학·사직·수원·대전 6경기, 광주·대구·고창·마산 3경기 등 총 48경기가 KBO 리그 구장에서 열린다.

한편 퓨처스 올스타전 휴식기간은 7월 12일부터 15일까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야구기록법 배워요

3월 17~18일 강습회

광주에서 ‘기록’을 통해 야구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제7회 야구기록강습회(이하 강습회)가 3월 17일과 18일 조선이공대학 교에서 열린다.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GBSA)와 한국야구기록연구회(KBR)가 주최하는 강습회는 지난 2011년 지역에서 처음 야구 기록을 주제로 해 열린 뒤,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이번 강습회는 야구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40명과 지역 야구 꿈나무와 학부모 20명 등 선착순 60명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비는 2만원이다. 야구협회에 소속된 학생은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강습회 신청자에게는 교재와 기록지가 제공되며, 강의를 이수할 경우 수료증이 지급된다. 수료자 중 매월 1회, 총 6회 이상 현장 기록에 참여한 경우 생활체육 및 학생 야구 현장 기록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강습회는 광주시야구협회 나훈 회장의 ‘야구 메카 광주의 야구 발전사’ 강의로 시작된다. 김재우 KBR 회장 등 관계자들도 강사로 나서 야구의 역사와 규칙, 규약 및 용어, 야구 기록법, 야구 규칙 등을 설명한다.

강의 둘째 날인 18일에는 ‘실전 훈련’이 진행된다. 강습회 참가자들은 프로야구 시범경기 중계를 보면서 직접 기록지를 작성하고, 이를 평가받는 다.

강습회 참가 신청은 (viva-sports.co.kr→KBR→행사안내), 이메일 (yonara77@naver.com), 전화(광주시 야구협회 062-375-8600)를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강습회는 광주일보, CMB, KIA 타이거즈, 조선이공대학교가 후원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